

호시노재심 뉴스 188 후 2013년 1월 15일 발행



옥중으로부터 ·이번 달의 그림



「팔레스타인(Palestina)·비탄을 힘에 바꾸어서 미래를」

발행 호시노씨를 되찾자! 전국재심연락회의

연락처 〒105-0004

도쿄도 미나토구 (港区) 신바시(新橋) 2-8-16 이시다(石田)빌딩 4층
2-8-16

Sinbashi, Minato-ku, tokyo, IshidaBldg4F

TEL 03-3591-8224 FAX 03-3591-8226

e-mail :qq8ucd9@dream.ocn.jp URL <http://fhoshino.u.cnet-ta.ne.jp/>

모든 증거개시 대운동을 추진하자

1 ~ 2 월 전국에서 학습회를 하자

작년 2.5 토쿠시마(徳島)형무소 포위데모와 11.23 호시노재심 전국집회의 성공은 호시노투쟁을 크게 비약시켰습니다. 2013년 모든 증거개시 대운동을 전국에서 진행해서 지금이야말로 호시노 후미아키(星野 文昭)씨의 해방을 쟁취하자. "호시노를 되찾는 싸움과 세상을 바꾸는 싸움이 하나가 되었다"라고 12월의 면회에서 호시노씨는 말했습니다. 세계대공황과 3.11의 정세속에서 "살게 해달라"고 부르짖으며 일어난 노동자민중의 싸움과 호시노씨 해방의 싸움이 하나가 되어 폭발하는 정세가 온 것입니다. 2013년은 작년을 훨씬 뛰어넘는 격동의 해가 됩니다. 민주당이 참패한 총선거에서 아베(安倍) 초 반동정권이 생겼습니다. 이 내각은 원전 재가동 개헌 . 전쟁 안보 . 오키나와(沖繩) TPP 증세등의 공격을 가해 오겠지만 아무런 성산도 없습니다. 그런 것을 날려 버린다 노동자인민의 싸움이 반드시 폭발합니다. 모든 증거개시 대운동은 호시노씨 해방의 싸움이자 노동자인민과 함께 승리하는 싸움입니다. 도쿄(東京)고등재판소의 3.30 기각결정은 극히 폭력적인 공격입니다만 수사관의 유도가 "기억환기의 유효한 방법"이라고 말할 수 밖에 없게 몰아넣은 것이며 내용적으로는 완전히 파탄 되어 있습니다. 이런것은 절대로 타파할 수 있습니다. 호시노씨 무죄의 증거는 검찰관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 증거를 모든 인민 앞에 내놓게 하면 호시노씨의 무죄는 명백해집니다. 모든 증거개시 대운동에서 재심무죄의 길을 열어 옥중 38년을 타파하자. 호시노씨가 70년 안보.오키나와(沖繩)투쟁을 싸운것 때문에 "살인죄"로 날조당해 무기징역형을 받고 있는것을 이제는 하루도 용서할 수 없습니다. 노동자인민에게 전신전령으로 진실을 호소하자. 호시노씨의 싸움을 안 사람은 영혼을 흔드는 느낌을 받아 함께 꺾기합니다. 『국제 노동운동』 2월호가 "호시노 후미아키(星野 文昭)는 무죄다" 특집호로서 발간되었습니다. 호시노씨가 무죄인 것을 "색갈" "목소리" "빛"의 세가지로 선명하게 내세워 모든 증거개시의 중요성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전국 곳곳에서 학습회를 개최하자. 모든 증거개시 대운동의 찬동인은 이미 710명이 넘었습니다. 그중에 변호사가 250명입니다. 온갖 노동조합이나 싸우는 단체에게 모든 증거개시 대운동을 호소해 찬동과 서명을 모으자. 그힘을 도쿄(東京)고등재판소에 부딪치자.

야마모토 타로(山本 太郎)씨의 선거 (토쿄(東京)8 구)를 응원



"원전을 없애고 사회를 바꾸자"

12월 상의원 선거에 야마모토 타로(山本 太郎)씨가 스기나미(杉並)선거구에서 출마한 이유로서 자민당(自民党).이시하라(石原)패밀리와의 대결과 아울러 스기나미(杉並)가 원자,수소폭탄 금지서명운동 발상지인것 자신의 첫 데모가 제작년 4월 코엔지(高円寺)였던 것을 들고있다. 모든 원전폐로 개헌저지의 깃발을 내세워 인생을 걸고 꺾기한 야마모토(山本)씨의 싸움은 전국 원전반대의 정점을 이루는 싸움이 되었다. 전국으로부터 자원 봉사자가 많이 모여 스기나미(杉並)구민과 하나가 되어 14일 저녁 오기쿠보(荻窪)역앞 15일 코우엔지(高円寺)역앞에서 뜨거운 원전반대의 도가니가 되었다 이 열기는 야마모토(山本)씨에게 호응하는 7만명이 넘는 사람들의 꺾기로 선거를 넘어서는 싸움의 폭팔이 되어 매스컴은 "탈원전의 의지를 연결하다" "이시하라(石原)를 맹추격"이라고 보도했다. 야마모토(山本)선거대책 사무소로부터 호시노재심 연락회의 사무소에 지원 요청이 있었다. 공동대표의 동의를 얻어 전국에 지원을 호소해 함께 싸웠다. 소선거구 제도속에서 극히 반동인 아베(安倍).자민당이 전 선거때 보다 적은 투표수 전쟁후 사상최저의 투표율로 상의원의 의석과 권력을 찬탈했다. 그러나 야마모토선거는 많은 비정규직의 청년들이 침낭 하나로 와서 나날의 만남을 힘으로 바꿔 원전에 대한 분노 3.11에서 파헤쳐진 "모든것이 거짓말"이었던 것에 분노를 폭발시켜 싸움을 해나갔다. 한사람 한사람의 꺾기가 단결을 위해 차례로 꺾기를 만들어나가 선거를 넘어서는 드라마의 연속이었다,

각지의 싸움

회화전과 교류회가 성공

카나가와(神奈川)현 전체로 확대를



카나가와(神奈川).호시노 후미아키(星野 文昭)를 되찾는 모임은 12월 13일 부터 16일 까지 "호시노 후미아키(星野 文昭)회화전"을 요코하마(横浜)시내의 카나가와(神奈川)구민센터 "카낙쿠 홀"에서 개최했습니다. 호시노 후미아키씨의 회화 28점과 후미아키씨의 가족사진 모든 증거개시의 호소를 전시했습니다. 4일간 180명의 참가자가 있었고 회장을 방문한 많은 분들이 "따뜻하고 좋은 그림이네요"라고 감상을 전해 주셨습니다. 수채화 애호가는 "연한 색깔의 사용 솜씨가 대단합니다"라고 감탄하고 있었습니다. 달력은 28부 팔렸습니다. 16일에는 호시노 아키코(星野 暎子)씨와 후쿠시마(福島)에서 원전폐로를 위해 싸우는 시이나 치에코(椎名 千恵子)씨가 참가해 두사람을 둘러싸고 교류회를 했습니다 아키코(暎子)씨는 12월의 면회보고와 후미아키(文昭)씨와의 만남 결혼 그리고 둘이서 싸워온 26년간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번에 처음 듣는 이야기도 많아 모든 증거개시 대운동을 확대해 호시노씨를 되찾자는 마음을 하나로 뭉칠 수 있었습니다. 시이나 치에코(椎名 千恵子)씨도 호시노씨를 되찾는 마음을 뜨겁게 이야기 하셨습니다. 시이나씨는 후쿠시마(福島)의 현실과 "후쿠시마 공동진료소" 건설을 보고했습니다. 호시노회화전을 통해 오키나와(沖縄)와 후쿠시마(福島)가 하나가 되어 대성공이었습니다. 카나가와(神奈川)에서 하는 회화전은 이번으로 두번째 입니다. 개최를 향해 현(県)내에서 가두선전과 서명활동을 거듭해 왔습니다. 11월 23일의 호시노 전국집회는 카나가와(神奈川)회화전 성공의 중요한 발판이 되었습니다. 전국집회의 발언소개를 포함해 가두선전의 호소는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검찰이나 재판소에 대한 분노를 이야기하는 많은 사람과의 만남이 있고 서명용지를 가져가서 친구나 아는사람의 서명을 지참하는 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호시노재심"에 대해 아직 모르는 사람이 많다는 현실이 있습니다. 13년은 이번 회화전의 성공을 또한 현내 전부로 확대하고자 생각하고 있습니다. 모든 증거개시 대운동으로 호시노 후미아키(星野 文昭)씨를 되찾자!

노나카 히로시(野中 浩)

토쿠시마 면회일기

호시노를 되찾는 싸움과 세상을 바꾸는 싸움을 하나로

호시노 아키코(星野 暎子)



12월 10일 추운날 이었다. 이제부터 3개월간 후미아키는 난로가 없는 형무소에서 추위와 싸움의 나날에 들어간다. 후미아키는 활기찼다. "포켓회로 쓸 수 있게 되었어? 일회용 회로가 구입품 목록에 들어 있다고 편지에 써있었길래 우선 물어봤다. "필요하다고 인정했을 경우 구입을 인정한다고 써있었다"고 후미아키는 말했다. 달력은 드디어 이날 차입할 수 있게 되었다. 수년 전부터 달력은 오지 않는다고 들었기에 올해도 글씨가 안보이게 풀칠을 해서 보냈으나 담당자가 벗겨 차입하지 못했다. 다시 스프레이로 풀칠해서 차입했다. 간수는 "끈질김에 졌다고"말했다고 한다. 내가 보낸 토쿠시마(徳島)변호사회의 "권고서"와 니시무라(西村)변호사가 보낸 소송자료가 들어 오지 않는 문제로 후미아키는 "감사관 신청"에 이어 "소장면접"도 했다고 말했다. "호시노를 되찾는 것과 세상을 바꾸는 것을 하나로 해서 하려고 생각하고 있다. 하나만 하고 있으면 막혀서 잘 안되지"라고 내가 말했더니 후미아키는 "그거야 그렇지 자기들이 하고 있는 것이 모두 노동자 인민의 미래를 열어가는 것이라 더 힘을들이게 되. 자기들만을 위해 해서는 막혀"라고 말했다. 이야기는 야마모토 타로(山本 太郎)씨가 상의원 선거에 출마했다는 이야기로 넘어갔다. "야마모토 타로(山本 太郎)는 열심히 하고있어. 야마모토 타로의 영향을 받아 원전반대 운동을 시작한 사람도 있다"고 후미아키는 말했다. 이 정세속에서 증거개시운동이 원전반대운동과 연결되면서 운동을 확대하기 쉬워졌다고 말했다. 후미아키는 11.23 호시노전국집회의 성공을 매우 기뻐하고 있어서 그 보고를 자세하게 듣고 싶어했다. 센다이(仙台)에 있는 아오야나기 요우코(青柳 葉子)씨 집회의 감상을 보내준 편지도 기뻐던 모양이다. 김 원중(金 元重)씨의 좋은 발언에 감동했다고 편지에 써서 보내왔다. 그리고 카메라맨 오오츠 코우시로(太津 幸四郎)씨를 잘 기억하고 있어서 오오츠씨가 후미아키를 "(타카사키(高崎)경제대학의) 자치회실에 가는것 만으로 처분당하는 것을 알면서 갔었다"고 이야기 해준것에 감동했다고 말했다. 포켓회로에 대해서는 신청에서 들었으나 본인의 신청이 있으면 전한다는 것이었다.

나날로 승리해온 38년

11일 이틀째의 면회는 드디어 후미아키 앞으로 전해진 달력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올해는 그림도 시도 만족하고 있다고 말했다. 색깔을 어떻게 썼는가등 자세하게 이야기를 나눴다. 12일 올해 마지막 면회. 후미이키가 건네준 상처받은 아이를 아버지가 껴안고 있는 그림 "팔레스티나 비탄을 힘으로 바꿔 미래를!"을 보면서 면회를 했다. 교토(京都)의 이토 요시코(伊藤 美子)씨가 차입 해주고 있는 "DAYS JAPAN"에 게재된 사진을 보고 그렸다고 말했다. "내가 싸우고있는 뿌리에는 아이들이 인생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에 대해 가지고 태어난 꽃을 피울수 있는 사회를 만들고 싶다는 것이 있다. 아키코가 이그림에 어떤 시를 지어줄지 기대된다" 라고 말했다. 그리고 올해를 되돌아 보면서 감상을 이야기 했다. "수년분 이라고 해도 될 정도의 충실한 일년이었다. 올해의 하이라이트 제일 기뻐던 것은 나의 38년 같이 살아온 26년이 본보기를 위한 세월이 아닌 해방을 걸고 무기징역에 나날이 승리해온 38년과 26년이었다고 아키코(暁子)가 내 어필을 가지고 여러곳에서 발신 해줘서야"라고 후미아키는 말하며 일년을 마무리하는 면회를 마쳤다.